

설명자료



배포일시	2017.8.10.(목)	보도시점	배포 즉시
담당과장	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장 김영돈	연락처	053-712-1040
담당	특수장비항공팀장 윤태균	연락처	053-712-1130
쪽수/붙임	1쪽 / 있음	대변인실	044-205-7016

「대형소방헬기 산불 출동 한적 없고, 구조실적 부진」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□ 보도내용 ('17. 8. 9.(수), 20:00경)

〈보도요지〉

- 중앙119구조본부, 400억원 넘게 주고 산 소방헬기가 산불진화 실적 없음
- 물탱크, 물대포 설치에 사흘이 걸려...
- 대형헬기 도입목적이 산불진화가 아닌 인명구조에 있다고 했으나, 구조실적 미미

□ 사실은 이렇습니다.

○ 대형헬기가 산불진화 실적이 없다?

- 5월 7일부터 8일까지 강릉·삼척 산불진화에는 중형헬기 투입하였으며, 이 기간동안 대형헬기는 백령도, 울릉도의 뇌졸중, 저혈당 쇼크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하였음.(3회 5명)

○ 물탱크, 물대포 설치에 사흘이 걸린다?

- 다목적 대형헬기의 주 임무는 대형 재난 발생 시 한 번에 많은 구조대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골든타임 내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EMS키트(응급의료장비)와 물탱크를 동시에 장착하는 것은 불가함.

* EMS 장비 제거 후 물탱크 장착시간 5시간 정도 소요

○ 인명구조 실적 미미하다?

- 대형헬기는 '09년부터 현재까지 459회*의 출동(358명 구조)

* 출동1회당 인명구조 인원은 0.8명

- 그중 대형헬기로 많은 구조대원(9명이상)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투입하여 구조활동 한 사례는 총 30건임

□ 향후계획

○ 앞으로도 중앙119구조본부는 산불 대응에 중형헬기를 우선 투입하고, 대형헬기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우선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임.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장비항공팀장 윤태균(☎ 053-712-11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